



해외양돈뉴스



※미 국

농무부, 2008년 돼지고기 수출량 최고치 예상 수출량 110만톤, 수출금 약 27억 달러 관측

미농무부(USDA)가 발표한 2008년 미국산 농산물 무역 전망 보고에 따르면, 주요 육류 수입국들에 비해 지속되는 미국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2008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량이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냉장, 냉동, 가공품 등을 포함한 2008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량은 110만톤, 수출금액은 약 27억달러로, 앞선 지난 8월에 내놓았던 예상치 100만톤, 수출금액 26억달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돼지 도축량, 미국 달러화 약세를 비롯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산 생돈 가격 등은 이 같은 예상을 더욱 뒷받침 해주고 있는 요인들이다.

한편 이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미국 달러화는 2007년과 비교해 유로화 대비 약 5% 평가절하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에 중국 위엔화, 브라질 레알화, 아르헨티나 페소화, 그리고 멕시코 페소화 대비 각각 6%, 3%, 8%, 0.5% 평가 절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美 돼지 값, 생산량 영향 감소

미국 돼지고기 협회 분석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과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미국 돈육협회는 과거 3~4년을 주기로 형성되던 돼지 사육두수 증감 패턴이 최근 들어 사라지고 있으며 돈가 또한 공급량보다 수요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분기별로 전년대비 도축두수 변화율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평균 도축변화율 편차는 2.7%로 70년대의 12.7%에 비해 크게 줄었다. 다시 말

해 예전에는 돈가 상승 → 사육두수 증가 → 돈가하락 → 사육두수 감소로 이어지는 사육주기가 있었으나 점차 사육 또는 공급물량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와 동시에 가격의 경우 변동폭이 크지만 이는 공급량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국내·외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04~05년 가격이 급등한 것은 공급이 감소한 때문이 아니라 미산 쇠고기 수급 불안정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돼지고기가 대체 육류로 소비가 늘어서라는 것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양돈업 구조가 점차 대규모 생산 그룹화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료·농장·도축·가공·유통까지 통합된 대규모 양돈생산그룹의 경우 소규모 양돈농가에 비해 양돈규모나 구조가 개방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돼지고기 생산 및 공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일 본

칠레산 돈육 수입 증가할 듯

일본의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은 칠레산 돼지고기 등 4가지 축산품목에 대해 특별관세를 적용키로 한 칠레와의 EPA(경제연계협정)이 9월 3일자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돼지고기는 2.2%, 햄·베이컨 4.3%, 기타 가공품 16%로 현행보다 각각 2.1%p, 4.2%p, 4%p가 낮은 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잔반 사료 보조금 지원

일본이 음식 쓰레기를 활용한 사료의 공급 확대에 나선다. 최근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내년부터 식품폐기물을 원료로 한 사료(에코피드)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회사, 식



료품폐기물 배출 업자, 식료품폐기물을 사료원료용으로 가공하는 업체 등이 연계된 에코피드 생산을 위한 지역 협의회 조직 등이다. 농수성은 이들 조직이 식료품폐기물 공급과 에코피드 생산을 늘릴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15년까지 농후사료의 국내자급률을 1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 E U

돈육 수출 보조금 지급한다

세계 시장 가격차만큼 환급

유럽연합(EU)이 최근 돈육 수출 부진을 털기 위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돼지고기 수출시 지역에 관계없이 세계 시장과 EU시장에서의 가격차이만큼을 환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미 달러화의 급격한 하락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과 경쟁하는 유럽 양돈농가의 수출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EU의 돼지고기 수출은 최근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유로화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면서 1분기 42만4천여톤으로 일년전보다 12% 감소했다.

유럽 돼지 값 작년보다 떨어져

생산 늘고 수출 줄어... 덴마크만 올라

유럽 각국의 돼지 값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 농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말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돼지 값이 지난해 동기보다 3~15%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9월말 평균 지육 kg당 가격은 프랑스 1.53달러, 네덜란드 1.7달러, 독일 1.85달러, 벨기에 1.88달러로 일년전에 견줘 각각 15.2%, 2.9%, 3.4%, 9.2%가 낮아졌다.

반면 덴마크(丁)는 1.56달러로 0.4% 소폭 올랐다. 이처럼 유럽의 돼지 값이 약세를 형성한 것은 생산량 증가에도 수출이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럽위원

회에 따르면 올해 EU의 비육돈 생산두수는 2억4천796만마리로 작년보다 0.8%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유로고 영향으로 1분기 돈육 수출이 일년전보다 12% 감소한 42만3천톤을 기록, 올해 초부터 비육돈 농가 판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내년 1분기에는 주요 생산국인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사료 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생산두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 중 국

사료 값 전년비 20% 올라

중국의 양돈사료 가격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농업부는 9월 기준 양돈사료 가격이 kg당 2.24위안으로 전월보다 3.2%, 지난해 동월에 견줘 19.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옥수수과 대두박 등 원료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때문으로 옥수수는 9월까지 평균 가격이 1.58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올랐다. 또 대두박의 경우 9월 3.15위안으로 한달전에 견줘 11.3%가 뛰었다.

✧ 대 만

대만도 생산 이력제 돈육 출시

대만도 생산 이력제 돈육이 출시됐다. 최근 대만 농민위원회는 따르면 지난달 이력제 적용 돼지고기가 농산물 검증관리법을 통과, 지난 2일 전국 20개 대형매장에 첫 선을 보였다는 것이다. 2년의 준비과정을 거친 이 시스템은 돼지의 출생, 이동, 도축, 포장, 운송 등 전 과정을 담은 개체식별번호를 돈육 상표에 표시, 소비자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5개 업체에서 이력제 인증을 받은 상태로 추가로 5개 돼지고기 생산 업체와 30개 양돈농가에서 이력제 참여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